

24일부터 K-패스 카드 발급 받으세요!

- K-패스 출시 일주일 전인 24일부터 신규 접수... 5월 1일부터 혜택 적용
- K-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 절차 거쳐야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강희업)는 협업 카드사(10개사)*들과 함께 4월 24일부터 K-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.
 - * 국민, 농협, BC(BC바로, 광주은행, IBK기업은행, 케이뱅크), 삼성, 신한, 우리, 하나, 현대, DGB유페이, 이동의 즐거움(모바일 이즐,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)
- K-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(시내·마을버스, 지하철, 광역버스, GTX 대상)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(일반인 20%, 청년층 30%, 저소득층 53%)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.
- 5월 1일 출시일부터 K-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-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 - 카드 발급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한편, K-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-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 카드 회원 전환 또는 K-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.
 -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(alcard.kr)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(알뜰카드 → K-패스)*를 거쳐 계속해서 K-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 - * 5월 이후에도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을 통해 6.30일까지 회원 전환 가능
 - 신규 가입자는 5월 1일 출시되는 K-패스 앱 또는 누리집(korea-pass.kr)에서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 - ※ K-패스 카드 신규 발급자도 4.24~4.30일 간 알뜰교통카드에 회원가입 후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-패스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음

-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 받아도 K-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. K-패스 혜택은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.
-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“5월 1일 K-패스가 출시되는 날부터 바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의해 사업 시작 일주일 전 카드 발급을 시작”한다면서,
 - “K-패스가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,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·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	책임자	과 장	백승록 (044-201-5080)
		담당자	사무관	박태현 (044-201-5082)
			사무관	박주연 (044-201-5087)



참고

K-패스 홍보 포스터 ※ 대용량 파일 별첨



국토교통부

TS 한국교통안전공단
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

www.korea-pass.kr

대한민국 대표 교통카드

“**K-패스**로
교통비
걱정
PASS!”



전국 방방곡곡 언제 어디서나-

혜택이 두루두루 행복이 차곡차곡

K-패스 환급 비율

일반, 청년, 저소득층에 따라 환급 비율 책정

일반	청년	저소득
20%	30%	53%

환급비용 지급 기준

월 대중교통 **15회** 이상 이용 시
최대 **60회**까지 지급